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경험과 대응 전략

공적 보호의 한계와 에스닉 네트워크의 활용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황지영 최서영

목차

- I. 문제제기
- II. 연구 방법
- III. 사고직후 실제 경로
- IV. 긴급 안전망
- V. 산재보험의 접근
- VI. 결론 및 정책 제안

I. 문제 제기

이주 노동자의 산업 재해 대처는 왜 불안정한가



〈이주 노동자〉

-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 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 생계나 노동을 위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일시적, 영구적으로 옮기는 자

〈고용 허가제〉

- 2024년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 이상
- 목적: 인력난 해소 + 내국인 노동자 보호
- 이주 노동자는 사업주 허락 없이 사업장 변경 불가
= 단기 체류
- 고용기간의 연장 = 사업주의 판단에 종속

I. 문제 제기

이주 노동자의 산업 재해 대처는 왜 불안정한가

한국인보다산재사망률높은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전체
2018년 산재사망자	126명(5.9%)	2140명
산재보험가입자	42만9698명(3.2%)	1324만6686명
2019년	138명(6.8%)	2020명
	45만1449명(3.3%)	1367만2530명
2020년	112명(5.4%)	2062명
	41만1848명(3%)	1385만8878명
2021년	122명(5.9%)	2080명
	40만2837명(2.8%)	1421만3678명
2022년	109명(4.9%)	2222명
	44만157명(3.0%)	1450만7845명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The JoongAng

〈이주노동자의 일자리〉

- 이주노동자는 위험한 일자리에 집중 배치
- 소규모 영세 사업장
- 낮은 노동시장 지위

〈산재 현황〉

- 반복적 부상과 건강 마모 경험
(Geronimus, 2023)
- 업무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누적

I. 문제 제기

이주 노동자의 산업 재해 대처는 왜 불안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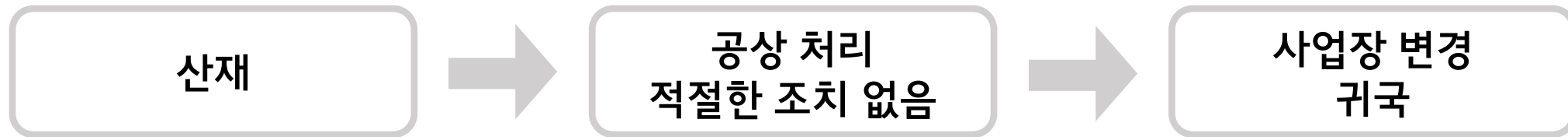
〈이주 노동자의 산업 재해〉

- 국가 수준에서 이주 노동자의 산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2020년 이주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재해율은 0.87로 전체 취업자(0.34)보다 훨씬 높았음
(정연 & 이나경, 2022)
- 통계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례만 집계, 실제 이주 노동자의 산재 위험은 더욱 심각할 가능성 높음

산업재해 이후는?

I. 문제 제기

이주 노동자의 산업 재해 대처는 왜 불안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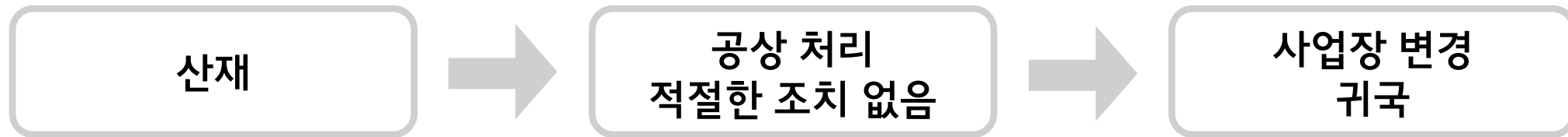


〈업무상 사고, 급성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하기〉

- 일반적으로 아래 과정으로 처리:
- [병원진료]-[공상처리 혹은 산재신청]-[요양]-[직업복귀/사업장 변경 혹은 본국 귀국]
 - 등록/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비자 문제는 산재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
 - 등록의 경우 체류자격 연장에 대한 사업주 권한이 문제, 미등록의 경우 추방에 대한 공포, 산재 임시비자 만료 시 문제

I. 문제 제기

이주 노동자의 산업 재해 대처는 왜 불안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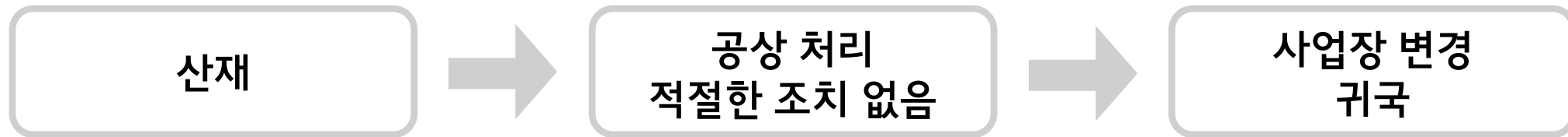


〈산재 처리 과정에서의 대표적 문제〉

- [산재신청] 사업주가 공상 처리 강요하면 등록/미등록 모두 사업주와의 관계, 체류자격 문제로 거부 어려움
- [공상처리] 사업주가 치료비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요양] 처리 유형과 무관하게 산재 요양 기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함
 - 입원 중에도 조기 종결 강요.
 - 특히 통원 치료 중 회사 기숙사에 사는 이주 노동자들은 업무 강요 거부 어려움

I. 문제 제기

이주 노동자의 산업 재해 대처는 왜 불안정한가



〈이주 노동자의 산재 보험 접근성〉

- 산재보험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포괄적 제도
- 언어 장벽, 체류 자격 불안, 행정 절차의 복잡성, 사업주의 반대 등으로 이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

이주노동자의 산재는 제도 문제가 아니라 경로의 문제

I. 문제 제기

기존 접근의 한계

〈이주 노동자의 산업 재해 예방〉

- 이주 노동자의 높은 산재 위험을 지적하고, 원인과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져 옴
(Ha et al., 2002; 김나경, 2023; 김춘호, 2020; 이선웅 et al., 2008; 한정훈, 2019)

〈이주 노동자의 산재 이후 경험〉

- 재해 발생 이후 이주 노동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노지현, 2015, 2016; 노지현 & 강선경, 2016)
- 산재 처리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가 겪는 인권 침해 문제
(송지영 & 정종민, 2025)
- 산재 보험 등 공적 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이주 노동자의 제한된 접근성
 - 체류자격 등 취약한 법적 지위, 복지 행정 정보 부족, 사업주의 방해 등이 다양하게 결합
(Nadas & Rathod, 2017; Reid et al., 2014; Walter et al., 2002; 김춘호, 2020; 곽윤경 & 김기태, 2021; 김정선, 2011; 윤선오 et al., 2005)

I. 문제 제기

이주 노동자의 산업 재해 대처는 왜 불안정한가

분석 관점

산재 대처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관계적 과정



- 이주노동자 혼자서 제도에 도달할 수 없는 “많은” 경우
- 반드시 ‘사람’ 을 거쳐야 함

I. 문제 제기

이주 노동자의 산업 재해 대처는 왜 불안정한가

산재 대처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관계적 과정

〈에스닉 네트워크〉

- 이주자 네트워크는 혈연, 우정, 출신 국가나 지역에 기반한 유대를 통해 이주자, 귀국한 이주자, 비이주자를 연결하는 대인관계의 집합
(Massey et al., 1993)
- 초기 이주자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정착을 시도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트워크는 신규 이주자에게 정착과 위기 대처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
- 이주자들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조력은 상호 부조 규범의 내면화,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 공통의 불리한 처지에서 비롯되는 연대 의식에 의해 가능
(Portes, 1998)

I. 문제 제기

이주 노동자의 산업 재해 대처는 왜 불안정한가

연구 목적

- ✓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가 어떻게 조력의 경로이자 안전망으로 작동하는지 파악

I. 문제 제기

연구 질문

이주 노동자는 산업 재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이주노동자는 산재 대처 과정에서 에스닉 네트워크 내의 조력에 어떻게 접근하게 되는가?

✓ 조력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며, 어떤 한계를 지니는가?

✓ 이와 같은 접근과 제공의 방식은 에스닉 네트워크를 어떤 성격의 안전망으로 형성하는가?

II. 연구 방법

〈인터뷰 자료 수집〉

- 초기 인터뷰 참여자를 통해 눈덩이 표집 실시
- 에스닉 마켓 방문하여 직접 인터뷰 참여자 모집
- 활동가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 모집
- 안전한 장소에서 연구 윤리와 참여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의 인터뷰 진행 하며 동의 후 녹음
- 사전에 미리 준비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산재 처리 과정과 조력 내용 등을 묻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

〈분석 방법〉

- 녹음된 인터뷰는 전사, 근거이론의 절차에 따라 코딩 분석 (Charmaz, 2006)

II. 연구 방법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가. 이주노동자

번호	식별 기호	성별	소속	상병 특성	출신 국가	현재 비자	입국 비자
1	호세	남성	무급가족	-	필리핀	F1	F1
2	후안	남성	제조업	-	필리핀	E9	E9
3	카를로스	남성	제조업	손가락/절단	필리핀	E9	E9
4	마르코	남성	제조업	다리/미끄러짐	필리핀	E9	E9
5	라메시	남성	제조업	폐/질병	방글라데시	E9	E9
6	모하마드	남성	제조업	손가락/끼임	방글라데시	E9	E9
7	민	남성	건설업	눈/실명	베트남	G1	C3

*주: 이주노동자는 식별 기호로 출신 국가의 대표적인 이름을 활용하였음.

나. 산재 조력자

번호	식별기호	성별	소속	기타
1	A	남성	노조	결혼이주
2	B	여성	노조	
3	C	남성	NGO	
4	D	남성	NGO	
5	E	남성	NGO	
6	F	여성	NGO	
7	G	여성	NGO	
8	H	남성	NGO	
9	I	여성	NGO	
10	J	남성	법조	
11	K	남성	법조	

<연구 대상>

모든 연구 대상은

한국에 거주 중이며

다음과 같이 분류 됨

- 이주민 당사자(5명)
- 이주민 조력자(3명)
- 선주민 조력자(10명)

III. 사고 직후 실제 경로

〈산재 이후〉

산재 보험

병원 거부/지연

사업주 회피



에스닉 네트워크



임시 보호

III. 사고 직후 실제 경로

-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는 어느 단계에서 사업주와 갈등을 빚는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짐
- 이주노동자에게 최선의 산재 대처는 사업주가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한 후 산재보험을 신청해 주는 것
- 이것이 어렵다면-장기화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공상으로 원만히 처리해 주는 것이 고통이 적은 방식
- 사업주가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 치료를 받고 주거 및 생계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조력자를 찾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일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고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듭

III. 사고 직후 실제 경로

- 이주노동자의 산재 대처는 승인(공상)-요양-복귀로 구성되는 한국인의 일반적 과정 + 비자의 유지가 필요
 - 그러나 복잡한 절차는 외부 조력 없이 체류자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듦
- 이때 이주자들은 에스닉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모색
 - 긴급 안전망(비용 조달 등)
 - 조력자 소개

IV. 긴급 안전망

에스닉 네트워크의 역할

- 병원 동행
 - 통역
 - 임신 거처
 - 간병
 - 의료비 지원
 - 조력자 소개
- 연구참여자들은 동포에 대한 상호부조의 의무를 내면화하고 관대한 조력을 주고 받아왔음

- 모스크에 주말마다 와요. 거기서 한 친구 만나서 그 친구를 아는 친구. 그 친구가 말했어요. ... 거기 한국 사람(조력자)이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 조력자 소개해 줬어요.

– 연구참여자 모하마드

- 거기(커뮤니티) 3만 명까지, 2만 명, 3만 명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도와주면 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나라 사람 누구 아프면 도와줘요.

– 연구참여자 라메시

IV. 긴급 안전망

조력의 지속 불가능성과 접근성

에스닉 네트워크의 한계

- 동원의 지속 가능성 문제
 - 돌봄 자원의 부족: 특히 간병 등 시간이 필요한 지원의 경우 더 취약
 - 에스닉 네트워크 내 불평등과 조력에 대한 접근성
 - 고국의 주류 종교와 다른 종교를 지니고 있음 등의 문제는 집단 내에서도 많은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함
 -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추방의 위험성 등으로 네트워크 참여 빈도가 낮음
 - 특히 난민 신청자의 경우 에스닉 네트워크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함
- 난민은 되게 소수자 집단이니까 예를 들면 그 국가 안에서도. 이제 주류와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류를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멤버이시기도 해서 예를 들면 소수 민족 이유로 오셨으면 그분이 다수 민족 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는 전혀 못 가시고 성소수자 이런 이슈가 있어도 그렇고 뭔가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해서 커뮤니티가 되게 구성되기가 어려운 조건이고 (...) 같은 커뮤니티를 되게 오히려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연구참여자F

V. 산재 보험의 접근

조력자 소개받기

<공식 제도>

근로복지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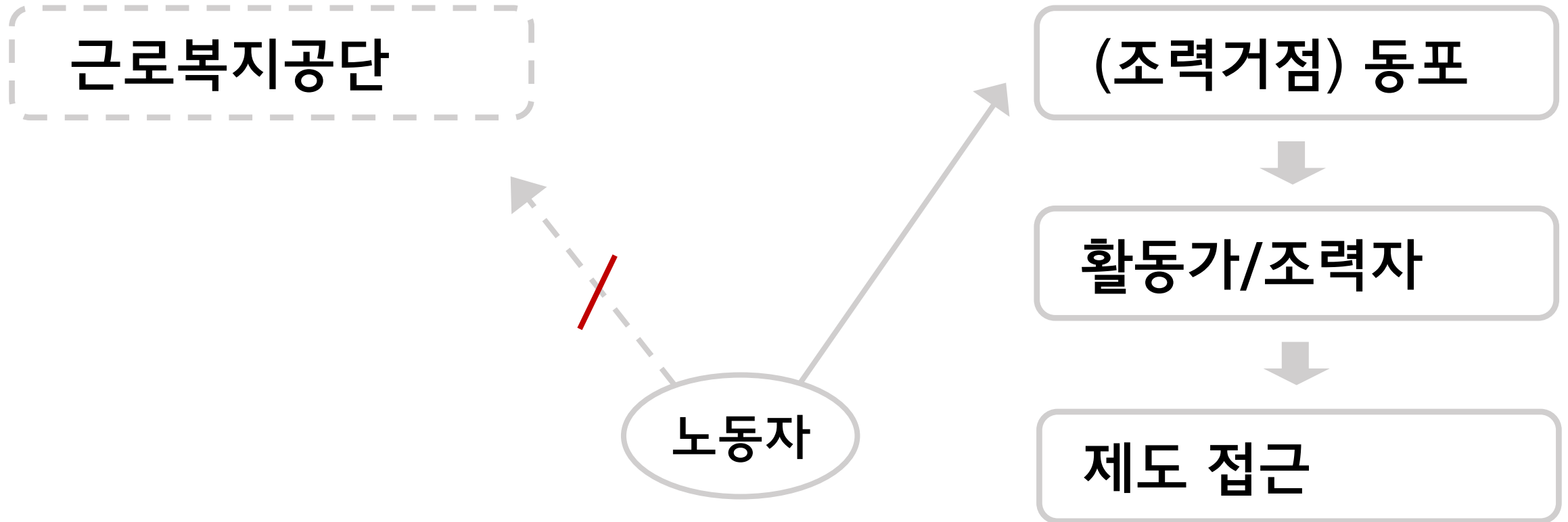
<비공식 경로>

(조력거점) 동포

활동가/조력자

제도 접근

노동자



V. 산재 보험의 접근

위험

법률 전문가의 홍보 창구로서 에스닉 네트워크

- 사람들 이거 문제 생기면 그다음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아 브로커 들 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아 100% 산재 받아 줄게요. 이렇게 해서 돈 받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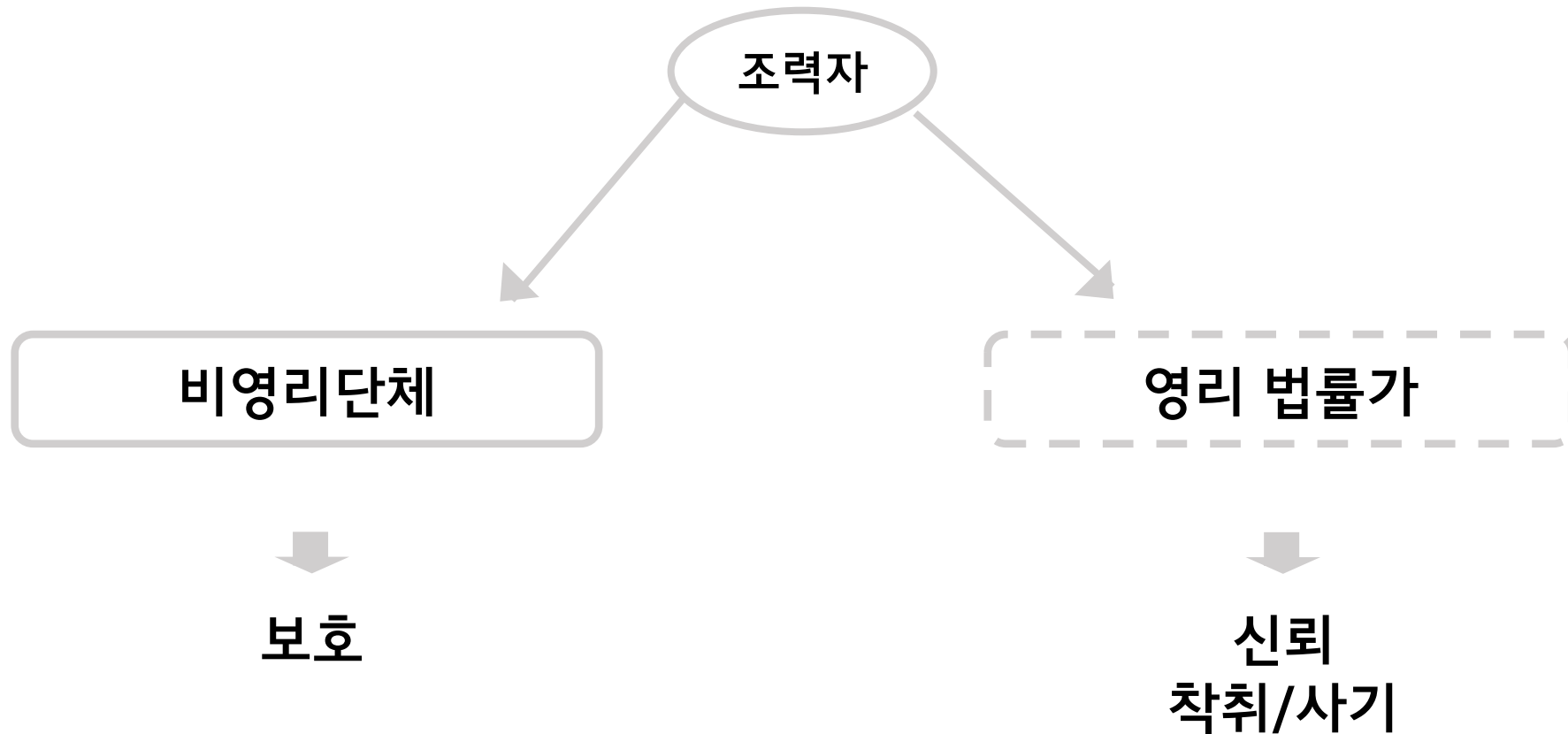
– 연구참여자 라메시

- 한국인 법률 전문가가 에스닉 네트워크와 자신의 연결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고객을 찾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음
- 이주노동자는 산재 상황에서 영리 목적 법률 전문가 중 신뢰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함
- 판단 기준은 주로 먼저 그 전문가의 서비스를 이용한 “선배 ”

V. 산재 보험의 접근

위험

법률 전문가의 홍보 창구로서 에스닉 네트워크



이주 노동자는 산업 재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결론 1: 이주 노동자의 자원 접근성과 산재 대처의 어려움

개인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자들은 에스닉 네트워크 내 정보를 이용하지만, 에스닉 네트워크의 약한 연결은 이주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에 “우연히” 닿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듦

✓ 결론 2: 이주 노동자가 이용하는 공/사적 안전망의 형태와 작동 방식

이주 정책이 이주 노동자 집단의 취약성을 가중시켜 이들에게 사적 안전망 체계를 요한다.

광의의 사적 안전망인 에스닉 네트워크의 내의 연결은 지속 가능성이 약하며,

지속적 조력이 가능한 조합 형식의 사적 안전망 체계 구축을 야기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정책 제언

이주 노동자는 산업 재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산재 접근은 개인 역량이 아니라 관계 경로의 문제

✓ 조력은 보호이자 동시에 위험

✓ 제도는 있지만 닿지 않는 구조

VI. 결론 및 정책 제안

이주 노동자는 산업 재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이주 노동자의 자원 접근성과 산재 대처의 어려움

개인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자들은 에스닉 네트워크 내 정보를 이용하지만, 에스닉 네트워크의 약한 연결은 이주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에 “우연히” 닿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듦

✓ 이주 노동자가 이용하는 공/사적 안전망의 형태와 작동 방식

이주 정책이 이주 노동자 집단의 취약성을 가중시켜 이들에게 사적 안전망 체계를 요한다.

광의의 사적 안전망인 에스닉 네트워크의 내의 연결은 지속 가능성이 약하며,

지속적 조력이 가능한 조합 형식의 사적 안전망 체계 구축을 야기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는 산업 재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경로의 단절이 문제라면, 정책은 제도 확충이 아니라, 조력 경로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인적 자원 풀을 확대하고, 언제든지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마련될 필요
 - 산재 대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통역, 행정, 노무, 의료 등의 인력을 공공 차원의 인적 풀로 조직화
 - 상시적 호출, 연결될 수 있는 구조 마련
- 이주자의 개별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연적인 조력 관계를 공공의 경로로 전환하는 것

VI. 결론 및 정책 제언

정책 제언

기존 정책

제언

제도 신설

경로 개입

개인 교육

관계 연결

사후 대응

과정 개입

정보 제공

인력 연결

감사합니다
